

石油 SWAP 거래

그동안 금융시장 및 일부 상품시장에서 가격 위험관리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오던 SWAP거래가 최근 석유시장에 도입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금융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던 SWAP거래가 상품분야에 도입 활용된 것은 몇년되지 않지만 현재 이미 거래가 규격화되는 정도로 발전되고 있으며, '89년 7월 CFTC가 상품 SWAP에 대한 안전조항을 규제하는 등 법적·제도적 환경도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상된다.

SWAP거래의 성격상 정확한 거래규모는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현재 SWAP시장의 규모는 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특히 지난해 석유 SWAP거래는 300%나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SWAP거래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일반 先物·先渡市場과 같은 위험관리(Hedging)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先物·先渡거래가 주로 단기적인 헷징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SWAP거래는 주로 장기적인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면, WTI先物의 한월(delivery month)이 최장 18개월에 불과한 반면, SWAP거래의 경우는 수년에서 10년까지의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SWAP거래는 반대방향의 헷징수요와 가격전망을 갖고있는 양당사자 사이에 은행·증권사등의 금융중개자가 개입, 거래이행·조건을 마련하는 재무계약(fin-

ancial contract)이다.

SWAP거래의 주요요소는 고정가격, 변동가격, 계약·결제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가격이란 양당사자들이 시장전망등을 배경으로 미래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가격을 협의하여 설정하는 가격이다. 고정가격은 선물거래에서의 현물가격에 비유할 수 있다.

반면 변동가격은 계약기간동안의 분할된 일정기간동안의 가격index(통상, 단위기간동안의 현물가격평균)을 말하며, 이것은 선물거래에서의 선물가격에 비유될 수 있다.

즉, SWAP거래란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선물시장에서의 가격변동위험을 SWAP손익(고정가격과 변동가격차이)으로 상계하여 헷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SWAP거래는 정기적인 헷징을 가능하게 해주는 외에도 참여자들의 NEGOTIATION에 의하여 보다 적합하고 융통성 있는 헷징 목표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잇점이 있어, 석유생산자, 소비자등 실질적인 헷징 수요자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NYMEX등 선물시장이 실수요자인 Hedger는 물론 투기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최근 각광을 받고있는 SWAP거래는 이러한 실질적 헷징이점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油開公, 주간석유뉴스〉

SWAP거래의 개념도

